



12면

'돌봄 찬 사회' 공감 확산  
젠더문화축제 비대면 진행

2020년 9월 18일 금요일 (음 8월 2일) 제262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道,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추진

### 조선산업 위기 돌파·대규모 국가사업 선정 총력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MOU체결 등 쟁점음

전북도가 도내 조선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국가사업 선정을 목표로 한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에 나선다.

도는 17일 도내 조선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국내 중소·특수선의 수리 개조 등 선박의 총수명주기관리 및 지원을 위한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사업과 관련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전북도는 지난 16일 군산시, 한국조선급,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관련기업과 도내 대학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선정과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사업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해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준비해 온 전북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구축사업을 구체화하고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등을 통한 종합적인 타당성분석을 통해 2021년 상반기 예타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또 오는 21일에는 관련 주요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다음 달에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의 고삐를 바짝 당길 방침이다.

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은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에서 벗어나 기술 기반의 중소선박, 특수선 및 기자재 기업이 중심이 되는 전북 조선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윤리 "운영 중단된 현대중공업의 재가동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본 용역을 통해 전북 조선해양산업의 위기극복 시발점 역할을 할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폐쇄된 전북대학교 소운동장  
정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17일 전북대학교 소운동장에 감염 예방을 위한 체육시설 잠정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 동물위생시험소, AI 대비 철새도래지 5곳 예찰 강화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5개소를 대상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하고 몽골과 대만 등 국내 철새 이동경로의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올 겨울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는 겨울철새를 통한 AI 유입 여부를 조기 검색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겨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내 주요 철새

도래지인 금강, 만경강, 동진강, 동립저수지, 조류지 등 5개소에서 야생조류의 분변검사를 할 계획이다. 이번 예찰 검사는 겨울 철새를 통한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여부 조기 확인을 통한 선제적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찰 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면 고병원성 여부 확인 전이라도 신속한 방역대 설정과 방역대 내 가금 일제검사 등을 실시해 확산방지를 위한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야생조류 분변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22건이 검출됐으며 도내에서는 동진강 하류의 철새 분변에서 1건이 검출된 바 있다.

전북도 이성재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올겨울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만큼 가금농가는 농가 내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유입되지 않도록 그물망, 울타리 등 방역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점검하고 외부인 출입통제와 소독 등 방역수칙을 빠짐없이 이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다.

###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 퇴출

#### 도, 쉬운 우리말로 정비

전북도가 자치법규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모두 없애고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나선다.

도는 자치법규 상에서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 시군의 65개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 20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른 주요 정비 용어에는, '전라북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법규에서 예산의 지출 등을 처리한다는 뜻으로 쓰고 있는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순화하고 건축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 주로 쓰이는 '시력(砂礫)'은 '자갈'로 순화하

는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이번 자치법규 정비를 도의회와 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라북도 공예품 개발·육성 조례' 등 8개 조례는 전북도의 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이 일괄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어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 13개 조항은 전북도가 일괄개정을 직접 추진해 오는 10월 공포 예정으로 도와 도의회 간 협업의 좋은 예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윤리 정비대상 65개 자치법규 중 55개에 해당하는 시군 자치법규는 해당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 전라감영, 옛 위용 드러낸다

#### 내달 7일 복원 기념식 개최

전라감영이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라도를 다스렸던 옛 위용을 드러낸다.

전주시와 전북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위원장 이명우)는 다음 달 7일 전라감영 현장에서 '찬란한 꽃, 찬년의 열매 - 전라감영'이라는 주제로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기념식을 개최한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념식은 1884년 미국 임시 대리 공사였던 조지 클레이튼 포크(George Clayton Foulk)가 전라감영을 방문했을 때 했던 '승전무' 공연으로 시작된다. 전라감사를 지낸 이석표의 호남일기(湖南日記)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전라감사 업무 인수인계식을 재현하는 전라감사 교대식 공연도 펼쳐진다.

이어 전라감사가 집무를 본 공간이자 전라감영을 상징하는 선화당 등 핵심건물 준공을 알리는 현판제막식, 전주시민과 전북도민들이 전라감영의 미래에 대해 전주시장과 전라북도지사에게 바라는 마음을 담은 희망보급 전달식이 진행된다.

공식 행사가 끝난 뒤에는 문화유산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복원된 전라감영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현장투어도 실시된다.

전라감영은 조선시대 때 지금의 전북, 전남, 광주를 물론이고 바다 건너 제주까지 다스린 전라감사가 지내던 곳이다. 부지는 옛 전북도청사 자리다. 전라감영 복원은 2005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으나 감염 복원 범위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지지부진하다 옛 도청사가 철거된 이후인 2017년 11월 착공했다.

전주시와 전북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는 이후 실무위원회 39회, 전체위원회 17회 등 56차례의 회의와 고건축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지난 27일 1단계 사업을 완료했다. 약 2년10개월 만에 완료된 1단계 사업은 최대한 조선시대 전라감영의 원형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 선화당과 내아, 내아행랑, 관공각, 연신당, 내삼문, 외행랑 등 핵심건물 7동이 복원됐다.

시는 전라감영 서측부지 등을 어떻게 활용하고 정비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마치는 대로 2단계 복원에 나설 계획으로 활용방안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임시 정비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